

# 한국 최고의 KWC 와인 심사위원 열전

Korea Wine Challenge(KWC)는 2005년 시작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 와인 컴피티션이다. 오랜 기간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늘 주최 측인 <Wine Review>가 고마워하는 것은 와인 평가에 참가한 심사위원들의 신뢰할 수 있는 능력과 그들의 열정이다. 본지 8월호부터 KWC에 참가한 심사위원들의 이력을 정리, 발표해 왔다. 이번 송년호에 다시 11분을 게재함으로써 그간 지속된 대장정을 끝낸다. 이번호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KWC 2022에 참여치 못했으나 그 이전부터 이 이벤트에 열정을 보였던 몇 분의 것도 함께 싣는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정영수 및 각 소믈리에

## 홍재경

2001년 3월 5일, 평창동에 자리한 가나아트센터에는 24명의 와인 아카데미 전문 과정 입학생이 첫 강의장에 모습을 보였다. 이들 수강생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홍재경 위원이다. 수강 당시 그는 조선 호텔 나인즈 게이트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늘 과묵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를 만나면 그저 반갑기만 하다.

2005년 제 1회 Korea Wine Challenge를 개최하면서 그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당시 보르도 와인 아카데미는 거의 2개월간 해외 와인전문가를 초청, 와인 수업에 전념케 했기에 와인평가에 손색이 없어 초기 심사위원 거의가 이 아카데미 출신이었다. 다만 결선에는 <Wine Review>의 해외 필진인 해외 전문가를 참가시켜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했다. 조선호텔 이후 조니워커 스쿨 원장, 하우스 오브 더 퍼플 대표 등을 역임하고 지금은 흥대 주변에서 '느린마을 양조장' 대표로 일하고 있다.

2001\_ 보르도 와인 아카데미 제 3기 수료

2005\_ 제 1회 KWC 심사위원

2018~ 현재\_ 느린마을 양조장 대표



## 이주형

이주형 위원은 지난 6월에 있는 제 18회 KWC 2022에서 예선과 결선에서 때로는 팀 리더의 역할을 맡으면서 이벤트를 매끄럽게 처리해 매우 신뢰받는 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처음으로 와인을 만난 것이 18년 전 지인의 비스트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이후 2004~2011 기간, 예환, 마고, 비노밸리 등에서 매니저/소믈리에의 경험을 쌓았고 다시 북 카페, 밀레 볼레에서 매니저 겸 헤드 소믈리에의 직책을 맡은 바 있다.

현재는 (주)더플랜오라는 법인명을 지니고서 플랫폼이라는 비건 카페&내추럴 와인 카페에서 본부장 겸 와인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달리 이 법인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와인 다이닝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다. 이위원장한테도 더 한층 열려있는 성취가 기대된다.

2004~2011\_ 예환, 마고 등에서 매니저/소믈리에

2014~현재\_ KWC 심사위원

2022\_ (주)더플랜오 본부장/와인 디렉터







## 김윤기

반가운 아카데미 출신의 심사위원 이름이 있어 다시 기록을 보았다. 2010년 3월부터 5월말까지 있는 제 23기 전문가 과정을 마친 보르도 와인 아카데미 수료생이다. 사실, 당시 아카데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와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회사의 손익을 떠나 해외 와인 전문가를 5명이나 초빙해 와인 강좌를 진행하였기에 그의 출신은 매우 신뢰 가는 인재들이라 여겨졌다.

김윤기 위원이 처음 와인과의 만남은 2004년 워커힐에 입사한 이후였다. 이 호텔의 이름난 이탈리아 레스토랑 '델비노'에서 근무한 바 있고 2010년 아카데미 과정을 마침으로서 탄탄한 내적 소양마저 충전했다. 2012년, 소펙사 소믈리에 경연대회에서 3위 입상을 하기도 했다. 현재는 인천에 소재하는 셀트리온 영빈관에서 총괄 책임자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 2010\_보르도 와인 아카데미 제 23기 수료
- 2015\_KWC 심사위원
- 2012~현재\_셀트리온 영빈관 총괄책임자

## 조영일

조영일 심사위원도 여느 위원과 다를 바 없이 와인의 베이스를 다진 후 오늘의 입지를 굳힌 케이스이다. 처음 와인에 관심을 가진 것이 20대 초반, 한 소믈리에를 만난데서 그의 이력이 쌓이기 시작했다.

2016~2018 기간 제대로 된 와인의 세계에 진입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웠다. 아메리칸 다이닝 레스토랑인 에스테반, 아임와인&까브의 와인샵/바에서 와인을 취급하면서 이의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다.

2019~2020년에는 다시 아메리카 다이닝의 더 훈에서 일한바 있다. 2020년 현재 지금의 한강신상 레스토랑에서 와인 서빙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이 레스토랑은 클래식 프렌치 스타일로서 꽤나 잘 알려진 있는 곳이다.

- 2016~2018\_에스테반
- 2019\_KWC 심사위원
- 2020\_더 리버 플라비에 근무



## 조재호

여느 심사위원과는 달리 와인과의 만남은 좀 늦썬 편이다. 2007년 인터콘 호텔의 연회장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나이 30살에 다시 와인의 세계와 인연을 가졌다. 2016년 몰랑 레스토랑(프렌치)에서 와인을 접하고 이후 2018년 정식당에서 소믈리에로 일했다.

2021년부터 한남동 소재의 MOSU Seoul에서 헤드 소믈리에로 일하고 있다. 이 식당은 Inovative Restaurant로서 미쉐린 3스타를 얻고 있다.

잠을 내 2019년에는 Sopexa 경연대회에서 결선 4위 입상을 하기도 했으며 2021년에는 Korea Sommier of the Year Top 10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2007\_Intercon Hotel 연회부
- 2021\_KWC 심사위원
- 2021\_MOSU Seoul 헤드 소믈리에



## 왕도열

5~6년 전으로 기억 되는 바 필자가 왕도열 심사위원을 처음 만난 것이 대전에 자리한 에꼴뒤뱅에서였다. 당시 와인특강 요청이 있어 강의를 위해 학원에 들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그의 와인에 대한 내력을 알게 되었고 이후부터 KWC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해마다 그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왕도열은 1991년 관광경영 수학과 프랑스 보르도의 빠삭에 머물면서 와인과의 만남을 가졌고 10년간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대학 강의를 맡으면서 한결 와인과의 인연을 깊이있게 했다.

2006년에는 와인 교육을 겸한 와인샵 에꼴뒤뱅을 설립하고 한편으로 대전에 자리한 우송대학에 출강하고 있으며 미농플러스 소믈리에로 활동하고 있다.

- 2006\_에꼴뒤뱅 설립
- 2017\_KWC 심사위원
- 현재\_에꼴뒤뱅 운영, 우송대학 출강



## 김형욱

김위원의 이력에 따를 때 그는 21살에 바텐더로 일한 바 있고 이후 와인에 관심을 갖고 백화점 와인샵에서 3년 정도 일한 바 있었다. 어느 면에서는 그의 와인과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동부 이천동에 자리한 와인바 하프페스트에서 처음으로 소믈리에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다.

2021년잠실에 새로 개장한 프랑스 아코르 그룹의 소피텔 멤버서더 서울호텔&레지던스에 입사, 이곳의 이름난 파리지역 풍인 '라티튜드 32'에서 일한 바 있다. 2012년에 Sopexa가 개최하는 소믈리에 경연대회에 도전해 1위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 호텔을 떠나 현재는 와인 컨설턴트로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2019\_KWC 심사위원  
2021\_Sopexa 경연대회 1위, 잠실 소피텔멤버서더  
2022 현재 프리랜서



## 임현래

서울에 상경, 임 심사위원이 와인 학습을 마친 뒤 처음으로 와인과의 만남을 가진 것은 2009년 더 레스토랑이었다. 2013년~2018년 기간에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소믈리에로 일한 바 있고, 이어서 2018~2021년 기간, JW 메리어트 호텔 총괄 헤드 소믈리에로 근무했었다.

2017년 한국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18~2021 코리아 소믈리에 오브 더 이어 top 10 소믈리에 리스트 업 되기도 했다.

현재는 소믈리에 직책에서 벗어나 와인 수입사인 아영 FBC에서 영업개발본부 개발 기획팀에서 새로이 와인과의 도전에 열정을 쏟고 있다.

2016\_KWC 심사위원  
2017\_국가대표 소믈리에 대회 은상 수상  
2021-현재(주) 아영 FBC 영업개발본부 기획팀 근무



## 윤형훈

KWC 심사위원으로 참가한지 아직은 일천한 위원이다. 처음은 커피 쪽을 공부했으나 와인의 세계에 매료되어 2016년부터 제대로 된 와인의 이력을 쌓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 청담동에 자리한 매그넘 더 테이스팅룸에서 와인과의 만남을 가졌고 2017년 7월 그랜드 하이얏트 호텔에 입사해 보다 와인의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다. 이후 2019년 5월, 서래마을에 있는 푸르뒤뱅에 발을 들여 놓음으로서 진정한 와인의 세계를 체험하기에 이르렀다.

푸르뒤뱅은 2000년 <Wine Review>가 직영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와인 샵·바였다. 지금은 운영권이 다른 이로 넘겨져 있다. 아직 넉넉하지 못한 경력이지만 그의 순수한 열정이 훌륭한 소믈리에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듯하다.

2017\_하이얏트 호텔 입사  
2019\_푸르뒤뱅  
2021\_KWC 심사위원

## 유영진

KWC 심사위원으로 데뷔한지 한참 된 역량 있는 위원이다. 그의 이름을 대하면서 보르도 와인 아카데미 수료시기를 체크해보았다. 2007년 3월 8일 입교 후 5월 18일 수료한 기록이 나온다. 당시 워커힌 Clock 16에 근무할 때였다. 앞서 수료한 선배들이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처음 와인에 접할 수 있는 계기는 2002년, 워커힌 호텔에 입사한 후이다. 이후 호텔 내 시그니처로 알려진 델비노(이탈리아 레스토랑)등을 위시해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친 후 지금은 호텔 전체의 와인을 총괄하는 한편 레스토랑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제 1회 동남아시아 프랑스와인 소믈리에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쥘 바 있고 제 6회 한국소믈리에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을 했다. 그의 화려한 각종 대회 수상을 배경으로 2008년 KWC 위원으로 참가했다.

2002\_워커힌 호텔 입사  
2007\_보르도 와인 아카데미 전문 과정 제 17기 수료  
현재\_워커힌 호텔 앤 리조트 총괄 소믈리에





## 은대환

우리나라 와인 업계에서 와인 평가 분야에서 남다른 족적을 보이는 KWC 심사위원이다. KWC 심사위원 열전을 마무리하면서 은대환 위원을 빠트릴 수 없어 맨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은위원이 처음 와인과의 접촉을 가진 것이 1996년 흥은동에 자리한 Swiss Grand Hotel. 사실 이 호텔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당시 부족한 숙박시설의 확보를 위해 정부지원 하에서 건설된 특급호텔이다. 필자가 당시 관광국장에 재직하면서 이 호텔의 건설에 전력투구했기에 잘 알고 있는 호텔이다. 해서 필자와는 매우 인연 깊은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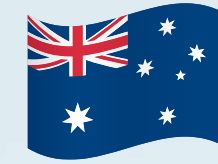
이후 메리어트 호텔, 리즈칼튼호텔, 인천 Grand Hyatt Hotel 등에서 와인 디렉터를 거친 바 있고 최근에는 김포에 있는 Mayfield Hotel에서 제너럴매니저로 일한 바 있다.

은대환 위원은 2006년 제 2회 KWC부터 2017년까지 예선, 결선 부문에서 열정으로 참여한 바 있다. 지금은 후학들한테 길을 빌려주고 있다. 또한 그의 능력이 해외까지 알려져 홍콩의 HKIWSC, 칠레 등지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2006-2017\_KWC 심사위원

2013-2019\_HKIWSC 한국심사위원

현재\_와인 컨설턴트



KWC 2022 수상 와인 릴레이

## 호주 I

매력적인 풍미의 수준급 쉬라즈로 전 세계를 사로 잡은 호주. 코리아와인챌린지(KWC) 2022에 참여한 신세계(New World) 나라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메달을 수상하며 저력을 보여 주었다. 호주는 묵직한 레드 와인뿐만 아니라 화이트 와인에서도 많은 메달을 획득하였는데, 이젠 호주 화이트 와인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두 차례의 KWC 호주 특집 기사를 통해 호주 주요 산지와 수상와인을 만나보자.

글 임효진 사진 및 자료 제공 장영수, 각 와이너리, 수입사, <Wine Review> 편집팀, Unsplash



시드니 전경